

Answers to the Questionnaires on Korean Cataloging Rules (I)

「韓國目錄規則」에 관한 質疑에 대한 解答 (上)

—朴熙永 先生의 質疑를 中心으로—

張 一 世
本會專門委員會委員長

1. 記入에 대한 문제

1973年 1月號 및 5月號 도협월보에 掲載된 韓國目錄規則에 대한 朴熙永 先生의 質疑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學術界의 病弊의 하나로 누구나 指摘하여 왔고 또 하나의 慣習처럼 되어왔던 無關心의인 태도를 是正하는 좋은 契機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바이다.

「無關心」에서 「關心」으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 圖書館界는 앞으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發展과 前進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韓國目錄規則 뿐만 아니라 韓國十進分類法 또는 그 밖의 여러 分野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發展이 요청되는 이때 韓國目錄規則(以下 KCR이라 略稱한다)에 대하여 至大한 관심을 보여주시 朴熙永 先生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細部の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目錄의 일반적인 機能, 그 중에서도 특히 「複數記入」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目錄의 機能은 國際圖書館協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略稱 IFLA) 主催 아래 파리에서 1961년에 열렸던 國際目錄原則會議에서 決議된 目錄原則에 자세히 記述되어 있는데,¹⁾ 그 내용을 要約한다면... 目錄은 그 도서관이 소장한 특정한 圖書를 著者 및 書名, 著者名이 그 圖書에 없을 경우에는 書名만으로, 또는 만일 그 도서관의 확인을 위하여 著者 및 書名이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書名 대신에 다른 적당한 代用語로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目錄으로서의 機能을 다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특정 著者에 의한 특정 著作 및 특정 著作의 특정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原則의인 機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單一記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同原則 第5條에서는 「複數記入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理由는 圖書의 性格上 한 가지의 記入으로서의 확실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한 圖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 圖書에 대한 記入을 여럿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그 여러 記入을 만드는 중에서 基本記入과 副記入 또는 參照記入을 왜 구분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英美目錄規則(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67; 略稱 AACR) 序文에서 명백히 解答하고 있는데²⁾ 複數記入을 原則적으로 채택하면서도 基本記入을 다른 記入으로부터 구별하여야 하는 理由로서는 書誌의인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모든 圖書館이나 書誌 및 圖書貿易 활동에서 單一記入語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慣例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出版社의 出版目錄, 注文目錄, 또는 書誌引用 등에서는 單一記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基本記入만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에서의 目錄機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複數記入이 필요하기 때문에 複數記入原則이 目錄原則會議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기서 되풀이 하는 理由는 圖書館에서의 目錄機能을 다 하기 위하여는 單一記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따라서 複數記入이 原則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基本記入과 副記入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동시에 서로 補完的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세부적인 문제에 接近하는 것이 요망되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였음을 말해 두고 싶다.

2. 東書의 記入樣式문제

朴熙永 先生은 도협월보 1973年 5月號(第14卷 5號: 以下 5月號로 약칭한다)에서 提起한 문제가 同年 1月號

1)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第2條.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1967. p.2.

에서 質疑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다루었으므로 우선 그 문제부터 다루기로 한다.³⁾

첫째의 문제는 東書의 記入樣式문제로서 二段式보다는 三段式이 東書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KCR(권의상 1966年度에 출판된 修正版을 기준으로 하였다) vii頁에 보면, KCR에서의 實例는 二段式 方法에 의하여 表示하기로 한다⁴⁾는 句節이 있다.

이것은 KCR에서 二段式을 주로 例示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는 것 뿐이고, 반드시 모든 도서관에서 꼭 二段式으로 記入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筆者가 쓴 KCR解説書⁵⁾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目錄에 記入하는 樣式은 요즘에 이르러서는 거의 世界的으로 統一되어 가고 있는 데...(中略) 그러나 도서관에 따라 또는 目錄學者에 따라 記入樣式에 있어서 지역적인 것에 다소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加급적으로 統一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권장하였다.

사실상 朴熙永 先生이 지적한 바와 같이 三段式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日本에서는 三段式이 日本圖協에 의하여 1952年以後, 公式으로 채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東書와 西書에 대한 目錄이 一元化되는 것이 目錄組織에 있어서 궁극적인 理想일진대 東西書를 위한 目錄樣式에서 二元的인 方法을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의 目錄學 權威者인 오노氏도 그의 著書에서 지적하기를⁶⁾...國際的으로 共通形式의 카아드를 작성 비치한다는 것은 圖書館經營의 先見의 見地에서 보더라도 必要한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도 日本의 圖書館界는 붙잡혀 있는 主觀을 放逐하고, 카아드 記入形式도「NCR」(註: 日本目錄規則) 原版의 二段式 記入形式을 취하는 것이 良識인 圖書館員의 賢明한 措置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筆者의 見解와도 一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노氏의 이러한 見解는 그 후 日本目錄規則에도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즉, 日本目錄規則 1965年版에서는 “和漢書의 경우에는 記載位置로서 三段式, 二段式의 方式이 許容되었다”⁷⁾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筆者의 主張한 바 있는 理想的인 一元化된 目錄組織을 향한 前進的인 조치로서 世界의 潮流에 逆行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例이다.

이러한 大前提의인 動向 이외에도 朴熙永 先生이 인용한 바와 같이 筆者의 KCR解説에서 몇 가지의 지적 사항을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카아드 面의 낭비문제이다.

朴先生은 5月號에서 몇 가지의 記入例를 提示하고 二段式과 三段式에서 카아드 面의 낭비의 差가 別반 없다

는 것을 설명 하였는데 그중 第12頁 右段에 例示한 것에 대하여 “모두 6列을 消費”하였다 하였으나 右側 下段의 3段式은 다음 例와 같이 7列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筆者의 論理는 合當한 것이다.

김, 정식, 1903—1925.

(決定版 素月全集) 뜻잇을 그사람: 新收錄. 詩, 感愾, 書簡, 小說全載, 金廷湜著, 白淳在, 河東鎬共編 [서울] 良書閣, 1966. 209p. 18cm.

즉, 出版事項이 따로 行行을 차지 하게되어 一列이 늘어 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書名이 긴것일 경우 카아드 面에서의 낭비성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은, 二段式의 경우 書名이 길 때에는 著者名의 姓이 記入된 위치에 書名의 둘째 줄 부터 記入된다는 사실로서 더욱 明白해진다. 主로 手書에 의하여야 할 東書 카아드면으로 一行에 記入되는 字數가 打字機에 의한것 보다 훨씬 적은 관계로 記入 사항이 많을 경우는 카아드 面의 낭비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同頁 左段에 例示한 짧은 書名을 가진 東書의 例는 二段이나 三段이나간에 큰 差異가 없어서 一차의 한장의 카아드 面에 記入하고도 여유가 있는 것이므로 좋은 例로는 보기 힘들다 하겠다.

그 다음 문제는, 朴熙永 先生은 11頁에서 “三段式의 가장 큰 短點은 카아드 面의 낭비가 많으며, 둘째로는 記載位置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短點 두가지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解説書에서 筆者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가지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東西書에 대한 記入樣式을 統一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同一하므로 利用者들의 利用面에서 아무런 혼란이나 錯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다.⁸⁾

이것은 筆者의 견해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朴熙永 先生은 5月號 13頁에서 三段式 記入樣式에서의 記入順序를 列舉하였는데, 비록 東書와 西書가 造本形態와 樣式에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카아드 上에서의 취급은 同一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造本形態와 樣式

3) 朴熙永. “東書目錄記入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도협월보 第14卷 5號, 1973. 5月, p. 11—18參照.

4)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서울, 1966. p. vii.

5)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 73.

6) 小野則秋. 圖書目錄の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2. p. 125—126.

7) 中村初雄. 圖書館資料組織編. 東京, 理想社, 昭和44(1970) p. 57.

8) 張一世. 前掲書. p. 74—75.

이 다르다는 理由에서 카아드의 記載樣式마저 다르게 하여야 한다면 東書, 西書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같은 東書 안에서 또는 西書 안에서 그러한 造本形態와 樣式이 다를 경우 같은 東書나 西書目録에서도 記入樣式이나 順序에 차이가 생겨야 한다는 理論이 되는 것이다. 특히 近來에는 造本形態나 樣式이 점점 世界的으로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사실은 目録記入에 있어서도 一元化되는 것이 理想的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筆者가 역시 KCR解說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⁹⁾ 東書, 西書を 막론하고 同一한 記入樣式을 취할 경우 目録作業을 역시 一元化할 수 있게 되어 더욱 能率의인 작업이 가능하다.

즉, 이 말은 東書나 西書を 막론하고 記入에 관한 모든 것이 同一하므로 二元的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目録작성 작업을 單一化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能率적이 된다.

이미 앞에서 말及한 바와 같이 가장 理想的인 目録組織은 東書, 西書を 막론하고 一元화된 目録이어야 한다는 見解에 대하여 異論이 없다면, 一元화된 目録組織內에 속하는 目録中에서 記入양식이나 순서가 전연 다른 目録이 混合排列되었을 경우 이를 利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는 쉽게 짐작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朴熙永 先生이 지적한 바와 같은 矛盾을 全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目録의 一元化되는 大前提를 향한 圖書館人의 姿勢로서는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世界의 潮流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標目の 記入形式문제

다음에 朴熙永 先生이提起한 문제는 標目の 記入形式 문제이다.¹⁰⁾ 문제의 核心은 標目の 記入形式을 “한글로만 한다”라고 KCR의 原則에서 제시했으나 이것이 書名基本記入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¹¹⁾ 한글로만 標目を 記入하는 데 따른 矛盾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朴熙永 先生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확실히 KCR原則에서 모든 標目は 한글로만 하기로 하였다.¹²⁾

그런데 이 문제를 檢討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은 標目이라는 낱말에 대한 概念이다.

朴熙永 先生은 5月號 14頁에서 美國圖書館協會 編의 用語解說을 引用하였는데, 이는 筆者의 見解와도 一致함은 물론이다. 이 해설은 KCR 解說書에서 筆者가 標目에 대하여 내린 概念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¹³⁾

標目は 標目이 되는 語의 性格에 따라 著者名標目, 書名標目 또는 主題名標目 등으로 불리우는 데, 朴先生

이 5月號 15頁 右段에서 圖示한 것은 筆者가 KCR解說에서 주로 다룬 辭典體目録을 형성하는 著者, 書名 및 主題名目録中¹⁴⁾ 主題名目録을 제외하고 있으며, 同圖示中 閱覽用目録 가운데 書名目録을 어찌하여 二次의 基準이 되는 것으로 다루었는지를 理解할 수 없다.

筆者가 이야기한 것, 즉 「標目は 그 카아드를 排列하는 基準」이라 한 것은 著者標目, 書名標目 및 主題名標目を 뜻하는 것이므로 朴熙永 先生이 5月號 15頁에서 例示한 目録種類中에서나 또는 圖示中 事務用인 書架目録이나 分類目録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標目에 대한 概念을 확실히 하여야 할 理由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즉, 著者名, 書名, 또는 主題名中 어떤 것이든지) 標目이 되든지, 그 標目は 곧 一次의 排列基準이 된다.

다음에 檢討하고 싶은 것은 「모든 標目は 한글로만 記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즉 모든 標目, 다시 말하면 바로 위에서 說明한 바 있는 세가지의 標目を 모두 한글로 記入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著者名은 말할 것도 없고, 書名이 漢字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副記入 되었었다. 즉

마의태자

麻衣太子

이광수

李光洙

麻衣太子

이와 같이 漢字로 된 標目에는 한글로 다시 表記하여서만 排列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日本에서는 여태것위의 例와 같이 記入하고 있어서 이의 번거러움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主題名이 아직 잘 發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主題名目録이 그리 널리 普及되지는 못하였으나 日本의 경우는 上記한 書名目録과 같이 主題名標目を 漢字로 주고 또 그 위에 日本假名으로 表記를 하고 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主題名이나 書名을 上記와 같이한다면 이것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없으나, 모든 標目を 한글로만 하게 되면 그러한 번잡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카아드面의 效果的인 活用에도 크게 도움이 되므로 매우 革新的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朴熙永 先生이 지적한 바와 같이 著者名이 基本記入이 되지 않고 前著者名圖書나 百科事典, 逐次刊

9) 張一世. 前掲書. p. 74.

10) 朴熙永. 前掲書. p. 13-18.

11) 朴熙永. 前掲書. p. 14.

12) 韓國圖書館協會. 前掲書 p. 6.

13) 張一世. 前掲書. p. 274.

14) 張一世. 前掲書. p. 39-40.

行物 등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여야 할 目錄에 있어서는 부득이 圖書에 記載되어 있는 그대로를 基本記入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朴熙永 先生은 5月號 14頁에서 말하기를 “...한글로만 標目을 記入하지 않고 어찌서 書名이 標目으로 될 때에는 漢字로 記入하는지 알 수 없다. 書名을 標目으로 할 때에 限하여 漢字를 그대로 記入하는 理由에 대하여서는 說明된 곳이 없어 어찌서 스스로가 定한 原則을 無視하고 있는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¹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筆者의 KCR解說書에는 이 점에 대한 明白한 說明이 포함되어 있다.¹⁶⁾ 즉, 그 本文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KCR의 특징이 모든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原則에 따른다면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할 경우에도 모두 한글로 써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書名을 標目으로 내세워서 단지 排列의 基準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二重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注意하여야 한다. 즉, 그 하나는 그 著書에서 쓰여진 그대로를 利用者들에게 그대로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역시 書名을 標目으로 排列하는데 基準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둘째이다”라고 하였다.

이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書名이 基本記入이 될 경우는 부득이 漢字일 때 그 위에 한글로 表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著者表示에서와 같이 二重을 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朴先生이 염려하는 것처럼¹⁷⁾ 所謂 過去式에 比하여 도리어 여러字가 二重으로 記入되지 아니하

며 도리어 많은 重複을 피하게 된다. 따라서 “目錄組織을 간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무能率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同時에 카이드의 스페이스 節約에도 도움을 준다”고 朴熙永 先生이 引用한 筆者의 말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¹⁸⁾

좀 더 視覺的으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同一한 目錄을 한글로만 表記한 것과 漢字 위에 한글 表記한 것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標目을 한글로 한 것.

목록법

장, 일세

韓國目錄規則解說

나. 標目을 漢字로 한 것.

목록법

目錄法

장일세

張, 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①가. 는 3列이고 나. 는 5列임.

②나. 의 경우 著者名 위의 한글 표기는 不必要할 것 같으나, 二次排列基準이 되므로 역시 한글 표기가 필요함.

이 예는 어떤 것이 얼마나 번잡하며 스페이스 문제도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次號 계속)

15) 朴熙永. 前掲書. p. 14.

16) 張一世. 前掲書. p. 134-135.

17) 朴熙永. 前掲書. p. 16.

18) 朴熙永. 前掲書. p. 17.

圖書協出版物案内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六
振替 서울三七五三

電話(22)四八六四
電(22)五六一三

韓國十進分類法

〔附〕相關索引
修正版

A 5版 / 七〇〇面 / (會)三二〇〇圓(非)四、〇〇〇圓
分類와 目錄은 資料組織의 兩大基本作業이다. 蒐集한 資料를 保存하고 利用을 하기 위하여 보다 빠르게 檢索할 수 있도록 記號化하는 基本分類道具이다.

韓國參考圖書解題

韓國書誌事業會編

B 5版 / 二六〇面 / (會)二〇〇〇圓(非)一、五〇〇圓
이 解題目錄은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參考圖書를 古典參考文獻으로 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刊行時期와 言語文字에 구애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록하여 現代의 研究資料로서 물론 과거의 資料도 檢索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관한 參考圖書類의 總集으로서 各學界의 研究者들에게 文獻情報을 提供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韓國書誌事業會編

B 5版 / 一六五面 / (會)一、六〇〇圓(非)二、〇〇〇圓
이 解題目錄은 一八七一一一九〇七年 사이의 外交文書五三件, 監理署文書一五九件, 海關文書一八件, 衙文書五六四件 등 總一、五四件에 滲透한 舊韓末古文書를 調査整理하여 解題收錄한 것으로서 當該分野研究에 貴重한 參考文獻이다.

韓國圖書館學叢書

十三種
十四卷

圖書館學翻譯叢書

九種
九卷